

4대 약취

우리 나라는 청결한 국민이다.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보내게 됨에 따라 청결함을 요구하는 기운이 점차 강하게 되고 있다. 청결한 생활을 고려할 때 뭐라고 해도 혐오스러운 것은 냄새이다. 오줌이나 땀의 자극적인 냄새(암모니아), 비린 생선냄새(트리메틸아민), 썩은 달걀냄새(유화수소), 썩은 양파냄새(메틸멜캅탄)이들 4가지 냄새는 4대 약취라고 한다.

소취섬유는 문자 그대로 냄새를 없앨 목적으로 개발된 섬유이다. 일반적으로는 산화, 환원, 중화, 부가, 치환, 그 외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소재에 소취효과를 주는 것이다. 향균작용이 있는 금속을 미세한 구멍이 뚫린 세라믹에 포함시켜 그것을 폴리에스터 섬유에 연입한 향균, 방취성 소재는 의류, 침장품, 운동용품, 부직포(섬유를 실로 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로 천으로 한 것), 필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된다. 또 아크릴 100%에 이온 결합방식으로써 약취에 사용된다. 무기질의 소취재를 수지 등으로 원단에 고착시킨 흡착형의 것도 있다. 또 나일론에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을 갖는 아크릴산을 화학반응으로 결합시켜 섬유자체에 약취를 흡착시키는 것도 있다. 흡착된 냄새는 극히 미량씩 빙산되고 있기 때문에 약취로써 코에 느끼지 않는다.

폴리에스터에 무기계의 향균제를 연입한 타입의 것은 세탁하여도 그의 효과가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새우나 게의 껍질로부터 추출도니 키토산에도 소취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입한 폴리노직(재생셀룰로스 섬유)은 소취만이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차잎으로부터 추출한 엑기스를 섬유 표면에 적셔 흡착시킨 것도 있다. 이것은 천연성분이 지니는 소취작용을 활용한 것인데 특히 약취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주로 이불솜 등에 사용한다. 청결 소재는 통상의 소재에

비하여 약 5~10%정도 높게 된다.